



보도자료

퓨어스토리지, 컴퓨버드 인수를 통한 파일서비스 기능 강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비전 가속화

2019년 4월 8일 — 혁신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플래시(all-flash) 스토리지 플랫폼 전문기업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m/kr, 지사장 배성호)가 스웨덴에 본사를 둔 파일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의 선도기업 컴퓨버드(Compuverde)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퓨어스토리지는 이번 인수를 통해 퓨어스토리지의 파일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기업이 향상된 파일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을 통해 기업이 데이터를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두 가지 환경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현을 지원하는 퓨어스토리지의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

최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파일 기반 공유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증가하고 있다. IDC에 따르면, 최종 사용자의 79 %는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와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파일 기반 스토리지를 활용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더 많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면서, 온-프레미스 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 기반 스토리지는 데이터 이동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¹

컴퓨버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탄탄한 기술 파트너십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장성이 뛰어난 컴퓨버드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전세계 통신, 금융 서비스 및 미디어 기업들이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퓨어스토리지 찰스 잔칼로(Charles Giancarlo) CEO는 "컴퓨버드 팀과 기술이 앞으로 퓨어스토리지에게 가져다 줄 무한한 기회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IT 전략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의 온-프레미스 솔루션과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의 혁신을 활용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데이터

1 출처: IDC, 증가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Growth of File Storage Services in the Public Cloud), 2018년 6월



서비스(Cloud Data Services)와 같은 확장된 하이브리드 데이터 솔루션 제품군을 통해 퓨어스토리지는 고객이 데이터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인수의 상세 거래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수는 2019년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

퓨어스토리지 소개

퓨어스토리지는 전세계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어스토리지의 데이터 솔루션은 SaaS,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 엔터프라이즈 및 공공 부문 기업들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핵심 운영 워크로드, 데브옵스 및 현대적인 분석업무들이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어스토리지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으로 고객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차세대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자사의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NPS 고객 추천 지수에서 B2B 기업 중 상위 1%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전세계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참고: 분석 보고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 5년 연속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SSA\) 부문 리더로 퓨어스토리지 선정](#)

[IDC 마켓스케이프 보고서: 2017 올플래시 어레이 벤더 분석 보고서에서 퓨어스토리지를 시장 리더로 선정](#)

###